

홈런·결승타 ‘Kang Kang쇼’



“Kang, 놀라워 ~”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미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홈경기 1회에 솔로 홈런을 때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 오른쪽)가 릭 소필드 삼루 코치의 환영을 받고 있다. 강정호는 2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0-0이던 1회 1사 주자 없는 첫 타석에서 상대 왼손 선발 투수 타이러 라이언스의 빠른 볼(시속 150km)을 그대로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아치를 뽐냈다. /연합뉴스

STL전 첫 2번 3루수 선발출전…공수주 맹활약 MVP

타율 0.333…선발시 타율 0.385 ‘주전 굳히기’ 시동



미국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한국인 타자 강정호(28)가 기선을 제압하는 시즌 2호 홈런과 결승타를 차례로 날리고 팀 승리의 주역이 됐다.

강정호는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0-0이던 1회 1사 주자 없는 첫 타석에서 직선타로 펜스를 넘기는 선제 솔로포를 날렸다.

강정호는 볼 카운트 2스트라이크 0볼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왼손 선발 투수 타이러 라이언스의 복판에 몰린 빠른 볼(시속 150km)을 그대로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아치를 뽐냈다.

지난 3일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9회 극적인 동점포로 박리그 통산 첫 홈런을 터뜨린 이래 일주일 만에 나온 대표이자 홈구장 첫 홈런이다.

홈팬들의 환호 속에 홈 경기 12번째 출전 만에 마침내 포물선을 그린 강정호는 3회에도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으나 유격수 정면으로 간 바람에 아쉽게 출루에 실패했다.

5회 삼진으로 돌아선 강정호에게 3-3으로 맞선 7회 다시 찬스가 찾아왔다.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하자 클린트 허들 감독은 토타자 조시 해리슨에게 보내기 번트를 지시했고, 1사 2루에서 강정호가 타석에 들어섰다.

강정호는 세인트루이스 우완 미치 해리슨의 시속 153km짜리 몸쪽 빠른 볼을 힘으로 끌어 당겨 좌익수 앞으로 가는 안타를 터뜨렸고, 2루 주자는 여유 있게 홈을 밟았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적시타로 잡은 1점차 우위를 끝까지 지켜 4-3으로 이겼다.

홈런과 적시타로 얻은 타점 2개로 강정호의 시즌 타점은 9개로 불었다.

또 이를 연속이자 시즌 6번째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작성해 시즌 타율은 0.318에서 0.333(48타수 16안타)으로 급등했다.

팀 사정상 주로 후보로 경기 후반에 출전하다가 최근 주전들의 부진으로 더 많이 선발로 나서서 강정호는 선발 출전 경기에서 타율 0.385(39타수 15안타)를 쳐 불박이 주전 굳히기에 시동을 걸었다.

전날 3루수로 출전해 2루수 닐 위커와 함께 메이저리그 최초로 2루수-3루수-2루수로 이어지는 삼중살을 엮어낸 강정호는 이날도 좋은 수비를 선사했다.

1-0으로 앞선 3회말 1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상대팀 투수 라이언스가 보내기 번트를 시도하자 전진수비로 그를 압박했고, 3루 파울 라인 쪽으로 뜬공을 날리자 재빠르게 이동해 건어내며 실점의 빌미를 주지 않았다.

/연합뉴스

부상선수 복귀…KIA, 안방서 반등 노린다

외야 김주찬·신종길, 마운드 한기주·곽정철·김진우 2군서 컨디션 점검

KT·두산 6연전, 2100승 -2·최희섭 100호포 -1·이범호 800타점 -2

KIA 타이거즈가 안방에서 승을 쌓기에 나선다. 팀 정상화를 앞두고 ‘버티기’가 진행된다.

지난주 난적 NC·넥센을 만나고 온 ‘호랑이 군단’이 안방에서 kt와 두산을 만난다. 원정 6연전 같은 멀고 힘했다. 올 시즌 스윙패를 안겨줬던 두 팀과의 대결에서 타선의 폭발력에 밀린 KIA는 2승4패 ‘루징 시리즈’로 지난 주를 마감했다.

이번 홈 6연전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주중 3연전에서 만나는 상대는 첫 만남에서 싸움이 3연승을 기록했던 막내 kt다. 주말에는 첫 시리즈에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던 두산이다. 어려운 상대지만 지원군들이 대기하고 있다.

선발진에서 가장 믿음직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양현종이 먼저 출격해 옥스포밍과 기싸움을 한다. 앞선 대결에서 달콤한 연승행진을 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막내 kt는 1군 무대에서 좌중우를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전력을 재정비하면서 지난주 4연승을 달리기도 했다.

두산과 첫 만남은 강렬했다. 이를 연속 연장 접전을 하며 1승2패를 기록했다. 리턴매치를 앞둔 KIA는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다. 부상과 부진으로 황폐화됐던 외야가 정예멤버들로 다시 채워지게 된다.

김원섭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 사타구니 통증으로 재활군에 머물렀던 김원섭은 지난 넥센



김주찬

김진우

전에서 복귀해 7타수 5안타(1홈런)로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김원섭의 가세로 공·수·주에서 전력이 강화됐다. 여기에 김주찬도 12일 헬린저스필드에서 시작되는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복귀를 위한 채비에 나선다. 허리 통증으로 1군 복귀 하루 만에 엔트리가 말소됐던 신종길도 주말 롯데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강건의 박준태도 지난 주말 3군과의 경기에서 몸을 풀면서 2군 경기 출전을 앞두고 있고, 경질성 2군행에 올랐던 외야수 나지완과 김다원도 주말에는 엔트리 재등 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마운드에서도 부상병들의 복귀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기주·곽정철·김병현이 2군 무대에서 칼을 갈고 있는 가운데 김진우도 퓨처스 리그에 합류

■ 프로야구 중간순위 (5월 11일 현재)

	팀	승	패	무	승률	연속
1	삼성	22	12	0	0.647	1패
2	두산	20	12	0	0.625	2승
3	SK	19	13	0	0.594	1승
4	넥센	19	15	0	0.559	1패
5	NC	18	15	0	0.545	3승
6	한화	17	16	0	0.515	2패
7	KIA	15	18	0	0.455	1승
8	롯데	15	19	0	0.441	6패
9	LG	15	20	0	0.429	1승
10	KT	7	27	0	0.206	1패

한다. 김진우는 지난 9일 한화와의 3군 경기에서 2이닝을 던지며 컨디션 점검을 끝냈다.

내야에는 부상으로 엔트리 변동이 있다. 지난 10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도루 도중 상대 수비수의 스파이크에 손등이 찔렸던 최용규가 11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다행히 뼈와 인대 손상은 비껴갔지만 심한 타박상으로 손등이 많이 부은 상태이다. 최용규를 대신해 고졸 2년차 박찬호가 올 시즌 처음 1군 무대에 오른다.

한편 이번 주 KIA가 2승을 추가하면 역대 두 번째로 2100승을 채우는 팀이 된다. 최희섭은 100호포에 하나를 남겨두고 있고, 10일 넥센전에서 통산 12번째 만루포를 터뜨리는 등 5타점을 쌓아냈던 이범호는 앞으로 두 명의 주자를 더 홈으로 불러들이면 통산 24번째로 800타점을 기록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7년 무주서 ‘세계 태권도대회’

6년만에 개최권…경쟁국 터키 제쳐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전북 무주에서 열린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은 지난 10일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17년에 개최하는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무주에서 치르기로 했다. 세계연맹은 집행위원 투표 결과 무주가 경쟁도시인 터키 삼순을 제치고 개최권을 따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권도 중주국인 우리나라는 역대 7번째이자 2011년 경주 대회 이후 6년 만에 다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1973년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역사

가 가장 길고 규모도 최대인 국제 태권도대회다.

12일부터 첼라빈스크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는 139개국에서 873명의 선수가 참가해 남녀 각 8세 급에서 총 16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무주는 7000만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원이 자리 잡은 곳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표심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약속도 큰 힘이 됐다. 전북도는 태권도원으로 기본적 인프라는 갖춘 만큼 순수 운영비로만 역대 최대인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회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도 자개발국 태권도 저변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현재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KIA 첫 ‘이달의 감독상’에 심동섭·최용규

KIA 좌완 심동섭과 내야수 최용규가 김기태 감독이 선정한 ‘이달의 감독상’ 첫 주인공이 됐다.

KIA 타이거즈가 12일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구단 지정병원인 연희한방병원이 시상하는 3·4월 이달의 감독상 시상식을 연다. 첫 수상자로 심동섭과 최용규가 이름을 올리면서 상금 50만 원을 받는다.

심동섭은 3·4월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13차례 중간계투로 나서 4홀드를 만들며 분전했다. 최

용규는 개막 이후 4월까지 전경기(25경기)에 출장하며 88타수 23안타(1홈런), 타율 0.318과 17타점 11득점을 기록하며 팀에 기여했다.

‘이달의 감독상’은 선수단의 팀워크 향상과 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됐으며, 연희한방병원의 후원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정규시즌 6개월 동안 투수·야수 각 1명씩을 뽑아 시상할 예정이다. 김기태 감독이 팀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선수를 직접 수상자로 선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